



AUSTRALIAN EMBASSY SEOUL

호주산 꿀에 관한 보도자료

한국 소비자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호주 식품은 청정하며 안전합니다.

호주는 식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 품질의 안전하고 청정한 식품을 생산해왔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SANZ)은 높은 식품안전 기준을 도입해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 식품은 당연히 이러한 높은 호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한국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호주 꿀에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최근 아일랜드 연구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식물, 동물, 균, 박테리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화학성분입니다. 식물의 알칼로이드는 꿀벌이 알칼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꽃에 앉아 꿀을 빨아들일 때 함께 채집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패터슨의 저주(Paterson's Curse)'라고 불리는 잡초가 이에 해당합니다만, 이 잡초는 해당 아일랜드 연구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수 년 전 그 시점 이후로 호주에서 그 개체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호주 꿀에 유해한 수준의 알칼로이드가 포함될 리스크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호주 국내나 해외에서 호주 꿀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독성물질"을 포함해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주 벌꿀 산업 협회는 해당 연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수 년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꿀 속에 식물 알칼로이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호주도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 노력을 통해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은 2000년 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식물 알칼로이드 잔여물을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호주 꿀,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언론보도 문의: (02) 2003-0189